

○ 근무여건

경찰관인 경우 12시간 3교대로 주당 근무 시간은 56시간이나, 소방관은 24시간 2교대로 주당 84시간으로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피로도를 느끼고 있으므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종류별정원정책기준규칙”에 의거 서울시는 소방공무원 정원을 교원과 함께 묶어 본청 정원의 27%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려면 일반직 정원을 감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은 별도 정원 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소방청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소방청 설립은 모든 소방공무원과 소방관계인의 여망이자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도 광역소방자치가 이루어져 16개 시·도 소방본부가 민방위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였고, 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제주 등에서는 민방위, 재난관리, 가스안전업무 등을 부분적으로 흡수 통합하였으나 중앙조직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산하에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소방국이 2원화되어 있어 소방조직의 독립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우선 소방총수를 책임자로 한 2개 기구를 통합하고, 이에 삼풍사고 및 고성산불 이후 신설된 재난관리기구를 흡수한 기구를 설치하여 소방공무원에 의한 정책수립과 일상불란한 지휘체계 확립으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방청을 신설하여 민방위재난관리조직과 산불진화, 가스안전관리 기능 및 기구를 소방본부 및 소방서로 흡수하여 일상불란한 지휘체계 확립과 재난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소방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여 소방관들의 손으로 조직과 인사, 예산을 독자적으로 운용·편성할 수 있도록 의청의 형태인 소방청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불평등한 관련법령이 개정되고, 독립된 의청으로서 소방청이 발족된다

면 소방공무원의 사기는 크게 진작되어 모든 재난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결국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오리라 확신합니다.

2001.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패적인 환경보전과 감소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운동」실천 및 촉구 결의안

오늘날 우리의 음식문화는 그 동안의 식생활 변화와 관련하여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식단에서 많은 음식물이 남겨 버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남겨 버려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문제는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매립할 경우에 발생하는 악취와 침출수, 그리고 소각할 경우에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등 대기오염물질로 우리의 생활환경을 크게 악화·오염시키는 주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30%에 불과하여 매년 100억불 이상의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지만, 연간 8조원 상당의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그 처리비용으로 매년 4천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매립지 추가확보의 불가피성 등을 감안할 때 남겨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는 서민생활의 가계와 국가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먹고 남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우리 국민 모두가 실천해야 할 주요한 과제이며, 이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안될 심각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이러한 면을 쉽게 간과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패적인 환경보전과 감소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서울특별시민 여러분과 함께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p>과 같이 결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결 의 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자원화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시민 스스로가 실천하는 민간 자율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서 실천한다.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 등과 연계하여「알뜰한 식단 마련하기」, 「남긴음식 싸가지고 가기」 등 음식문화개선 시민운동을 전개한다. 환경친화적 음식물 처리를 위한 새로운 시책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풍토조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앞으로 「음식문화개선운동」이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p style="text-align: center;">2001.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p> <hr/>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급식실태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한 수정안</p> <p>학교급식실태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항 조사기간 “2001.4.1~2001.9.30(6개월)”을 “2001.4.1~2001.6.30(3개월)”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급식실태행정사무조사계획서</p> <p style="text-align: right;">2001년 3월 일 문화교육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기 학생의 발육에 필요한 균형 있는 영양식을 공급함으로써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올바른 식습관 교육을 통한 국민식생활개선 및 전인적인 인간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급식 및 위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으나 ○ 일부학교에서 위탁급식운영체 선정의 불공정, 급식품 구매·검수의 부적정, 불량 우유급식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급식운영업체선정과정, 위탁급식운영실태 및 각종 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서 보완책을 마련하여 학교급식의 질적향상과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기간 : 2001.4.1~2001.6.30(3개월간)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지역교육청 ○ 서울시내 학교급식 및 위탁급식 실시 초·중·고 조사실시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위원 편성 :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소위원회 구성 나. 사무보조자 배치 : 6명 (총괄지원1, 행정지원3, 기록지원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1) : 전문위원 윤병국 ○ 행정지원(3) : 이광수, 윤종수, 이근주 ○ 기록지원(2) : 박향, 심선영 조사일정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간동안 위원회 회의실 서면조사 또는 현지 출장조사 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급식운영업체선정과정 ○ 위탁급식운영실태 ○ 위탁급식관련 각종 규정준수여부 ○ 급식품 구매·검수사항 이행여부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 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 교육감,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 현지출장조사 또는 문서 확인 조사의 보고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사 완료시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 조사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에 이송 처리요구 소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출장여비, 증인등 출석여비, 조사활동비 및 일반수용비 등은 의회 지급기준에 따른다. 행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교육감은 본 조사계획에 따라 관련
---	---